

조선후기 과책(科策) 참고서의 작법 요령

- 『책형(策型)』과 『변려화조(駢儷華藻)』를 중심으로 -

이상욱*

【국문초록】

본고는 조선 후기에 작성된 과책(科策) 참고서 두 편에 대한 분석을 통해, 조선 후기 과책, 더 나아가 과문(科文) 전반의 문체적 특징을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조선 초기의 과문과 달리, 조선 후기의 과문은 전통적인 한문 문체와는 전혀 다른 별격(別格)의 문체가 되어 있었다. 이는 조선만의 특유한 교육·문화적 배경이 작용한 결과로, 이 별격 문체들의 거시적인 방향성을 살펴보면 조선이 추구했던 바, 그리고 그것이 중국과 달랐던 지점에 대해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고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책형(策型)』(총3책)과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변려화조(駢儷華藻)』(1책) 두 과책 참고서 문헌을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책형』은 18세기 초반에, 『변려화조』는 19세기 초반으로 그 작성 시기가 추정된다. 이 두 문헌에는 당대 과책의 작법 요령이 풍부하게 기술되어 있어, 조선 후기 과책의 문체적 특징과 수험 문화, 그리고 그 역사적 변화 양상을 살피는데 도움이 된다.

본고는 먼저 두 참고서 문헌의 체제와 내용을 검토하고, 두 문헌에서 소개되고 있는 과책문 작법 요령들을 소개한다. 이들의 정식(程式) 구성 방식, 내용, 수사법(修辭法) 설명 등의 분석을 통해 이 참고서들의 대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며, 이를 토대로 조선 후기 과책 문체의 특수성과 역사적 맥락에 대해 논할 것이다.

핵심어 : 과문, 대책, 책문, 과책, 참고서, 책형, 변려화조

* 스위스 제네바대학교

차례

1. 들어가며
2. 『策型』과 『駢儷華藻』
3. 과책(科策) 작법 요령의 특징
4. 과책(科策)의 전체 내용 구성 방식
5. 나오며

1. 들어가며

과책(科策)은 조선의 과거(科擧)에서 시험된 대책(對策)¹⁾을 이르는 말이다. 조선에서 과책은 문과(文科)의 종장(終場)과 최종합격자를 대상으로 왕 앞에서 치르는 전시(殿試)에서 주로 시험된 문체였다. 물론 성균관 월과(月課)나 비정기 과거시험인 정시(庭試)나 별시(別試) 등에서도 자주 출제되었다. 과시(科詩)는 소과(小科)인 진사시(進士試)에서만 시험되었고, 과부(科賦)는 소과와 대과(大科)에서 모두 광범위하게 시험되었다. 과부는 여타 문체들에 비해 형식적 제약이 가장 적고, 비교적 쓰기가 쉬워 조선 후기에는 향유(鄉儒)를 배려하는 차원에서 많이 시험되기도 하였다.²⁾ 이에 비해 과표(科表)와 과책은 문과 이상의 시험에서 주로 채택되었다. 이는 실제적으로 과표와 과책이 관리가 된 후 써야하는 관각문(館閣文)과 비슷해서 이들의 실제 쓰기 능력을 시험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과표는 왕

1) 본고에서 대책(對策)이라 하면, 왕 또는 시험관의 질문에 대해 답해 쓰는 한문 산문 문체를 지칭하며, 책문(策問)은 질문, 대책문(對策文)은 답안으로 작성되는 개별 글, 책문(策文)은 책문(策問)과 대책문(對策文)을 포괄하는 개별 글을 지칭하기로 한다. 과책(科策)은 과거시험이라는 특정한 맥락에서 작성되는 대책(對策)을 뜻한다.

2) 박현순, 「조선후기 文科에 나타난 京鄕 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 58, 2008, 15~16면; 張裕昇, 「科詩의 형식과 문체적 특징」, 『大東漢文學』 第39輯, 2013, 21~23면 참조.

실의 경조(慶弔) 등 의례(儀禮)적인 상황이나 외교 문서에 쓰이는 글들과 그 형태가 유사했고,³⁾ 과책은 왕에게 의견을 진달하는 소·차(疏·劄) 류의 글들과 그 기본적인 성격이 같았다.

본래 대책(對策)은 왕이 어떤 문제를 해결할 목적으로 신하에게 질문하면, 신하 입장에서 그 해결책을 제시하는 문제이다. 조선에서는 대책이 과거 시험의 한 과목으로 시험되면서, 실질적 해결책 자체보다 이 해결책을 도출하기 위한 적절한 논리 구성과 풍부한 전고 구사 능력 등 글쓰기 능력이 더 중요해 졌다. 조선에서 이 ‘해결책’을 도출하는 논리는 매우 형식화 되어, 허두(虛頭), 중두(中頭), 축조(逐條), 대저(大抵), 아동(我東), 당금(當今), 설폐(設弊), 구폐(救弊), 편종(篇終) 등으로 명명된 정식(程式) 단락이 구성되었다. 이 과책 정식(程式)은 조선 초기부터 있어 왔고, 여타 과문 문체에 비해 비교적 공식적으로도 인정되고 있어서,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공적인 대화에서도 자주 언급되기도 한다.

신 심엄조(沈念祖)와 정지검(鄭志儉)에게 이르기를, “지금의 책문(策問)은 옛 법식이 아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른 응대(應對)의 수준이 더욱 낮다. 소위 ‘허두(虛頭)’, ‘중두(中頭)’, ‘축조(逐條)’, ‘설폐(設弊)’, ‘구폐(救弊)’, ‘편종(篇終)’을 질문하는 자가 모두 미리 가설하고 응대하는 자가 조목에 따라 양식대로 부연 설명할 뿐이다. 인습한 지가 오래되어 일정한 투식이 되고 말았으니 말이 비록 좋더라도 어디에 쓰겠는가. 책문에 응하는 선비가 실제적인 일에 마음을 쏟아 미리 강구하지 않는 것은, 투식어가 따로 있어 이를 일삼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하물며 초계문신(抄啓文臣)은 경제(經濟)에 급급함이 사자(士者)보다 더함이 있다. 이제부터는 책문(策問)을 대략 옛 법식을 모방해서 근래의 규식을 모두 버리고 당세의 요

3) 심경호, 『한국한문학의 변문 활용 문제와 그 역사문화상 기능』, 『한국한문학연구』 제77호, 2020, 270~272면.

긴한 급선무에 대해 질문함으로써 모방하고 꾸미어 짓지 못하게 하고, 각자 자신의 의견에 따라 소씨(蘇氏)의 책략(策略) 같은 수십 줄의 글을 지어내게 한다면 아마도 체재와 내용이 일정한 투식에 빠지지 않고 유용한 글이 될 것이며 잘하고 못한 것을 쉽게 판별할 수 있을 것이다. 오래도록 시행하면 필시 신진배(新進輩)들이 세무(世務)에 유의(留意)하게 하는데 일조가 될 것이다. 그대들은 알아 두라.” 하였다.⁴⁾

정조(正祖)에게 당대의 과책은 투식(套式)에 지나치게 구애되어 ‘실제 내용’을 담을 수 없다고 보고, 소식(蘇軾)의 책략(策略) 형식을 따라 질문된 내용에만 한정해 답안을 쓰도록 하고자 했다. 위 정조의 발언에서도 볼 수 있듯이, 글쓰기 능력이 강조된 조선 후기의 과책은 본래 문체인 대책과는 전혀 다른 별격(別格)의 문체가 되었다.⁵⁾ 그도 그럴 것이 전통 문체로서의 대책의 목표가 기본적으로 왕에게 해결책을 제시하는 것이었다면, 조선의 과책은 시험관의 눈에 들어 급제하는 것이 최종 목표가 된 글 양식이기 때문이다. 글의 완성도를 판단하는 기준, 글의 구성 방식, 수사(修辭) 방식 등이 이 ‘최종 목표’에 의해 재구성될 수밖에 없었다. 수험생들이 사회의 실제 문제에 대해 공부하지 않는다는 정조의 불만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였다. 문제는 이와 같은 과책 문체의 특징이 조선 초기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고 형성되었다는 것이다.⁶⁾ 이는 조선만의

4) 『弘齋全書』卷百六十一, 日得錄一, 文學一 “謂臣念祖臣志儉曰: “今之策問, 非古也, 故其對愈下. 如所謂虛頭・中頭・逐條・大抵・設弊・掾弊・篇終, 問者皆預爲之設, 而對者則隨條步趨, 依樣敷衍而已. 因襲既久, 莫不有一定之套, 語雖善, 將焉用之? 策士之不經心事務而預講之者, 以有套語在而無事乎此也. 況抄啓文臣, 其急於經濟, 有甚於士者, 始自今策問, 略倣古式, 盡擺近規, 問以當世之要務, 俾不得以模擬粧撰, 各隨己見, 做出數十行文字, 如蘇氏策略, 則庶乎其機軸指畫, 不歸一套, 爲有用之文, 而易辨其工拙, 行之悠久, 則亦必爲新進輩留意世務之一助也, 爾等識之. 원문과 번역은 한국고전종합DB의 내용을 토대로 필자가 수정하였다.

5) 이상욱, 「조선 과문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 189~194면 참조.

특유한 교육·문화적 배경이 작용한 결과로, 이 별격 문체는 조선의 고유한 역사적, 지성사적 논점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특히 조선 후기에는 과책을 포함한 모든 과문 문체에 걸쳐 정식(程式)이 세분되고 획일화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과표와 과책을 중심으로 구체적 인 작법 요령들을 설명한 참고서들이 등장하게 된다. 사실 과문 정식(程式)의 형식화와 작법 참고서⁷⁾의 출현은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다분히 강제성을 띠는 규식화된 정식이 있어야 이를 설명하는 참고서가 있을 수 있고, 또 이 참고서들은 다시 정식 내지 작법들을 더 강하게 규식화하는 상호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호작용은 대략 17세기 후반부터 시작 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통해 18, 19세기에는 여러 과문 문체에 상당한 구속력을 갖는 일종의 규식(規式)이 확립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특정 과문 문체의 작법에 대해 공표한 적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규식’은 실제 시험장에서 출제자와 응시자 사이에 암묵적인 평가 기준이 되었으며, 이 새로운 문체의 주요한 변별 자질이 되었다. 따라서 과책 참고서는 앞서 정조가 언급한 조선 후기 과책의 형식화 문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주요한 텍스트가 된다.

조선 초기의 대책문들은 과거시험에서 시험되었더라도, 왕이 널리 의견을 구한다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면이 있었다. 따라서 이들 대책문의 ‘내용’은 당대 지식인들의 정치적 식견이나 여론, 사상 등을 엿볼 수 있는 텍스트로서 연구가 가능하다.⁸⁾ 하지만 시험 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화된 조선 후

6) 이상욱(2015b), 186~188면; 195~207면 참조.

7) 본고에서 과문 작법 참고서라 함은 광의의 과거 시험 참고서, 예컨대 경전·사서나 각종 시·문집 또는 과문 모음집 등을 제외한, 오로지 과문 작성을 위한 작법이 제시된 문헌을 지칭하기로 한다.

8) 조선 초기 대책문 내용에 관한 연구는 상당히 많은데, 본고가 참조한 최근 논문들은 다음과 같다. 임완혁, 『조선전기(朝鮮前期) 책문(策文)과 사(士)의 세계(世界) 인식

기의 과책은, 소수의 특별한 예⁹⁾를 제외하고는 시험의 논리에 의해 작성된 시험 답안의 성격을 벗어나지 않으며, 그 내용도 천편일률적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조선 후기 과거시험에서의 대책, 즉 과책에서 역사적으로 유의미한 ‘내용’을 찾기는 쉽지 않다. 반면에 ‘글쓰기’의 측면에서 조선 후기 과책은 상당한 연구 가치가 있다. 위 정조의 언급처럼 조선 후기의 과책에는 일종의 거꾸집과 같은 글쓰기 틀이 적용되어, 수험생들이 이 ‘틀’을 이용해 글을 써 냈다. 특히 여러 과문 문체 중 과책은 당대의 여러 정치·사회 문제들을 인식하고, 정리하고, 또 근거를 모아 그 해결책을 도출하는 당대 지식인들의 문제 인식, 사고 과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들어 과문 전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과책 문체 또는 글쓰기 방식에 대해 다각도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들 연구를 통해 과책 문체

(認識): 『전책정수(殿策精粹)』를 중심으로, 『漢文學報』 20집, 2009; 김현옥, 「성삼문(成三問)과 신숙주(申叔舟)의 책문(策文)에 나타난 현실인식(現實認識) 비교(比較)」, 『漢文學論集』 33집, 2011; 안소연, 「금남 최부의 정치 활동과 인재관: 성종 17년 重試책문과 최부의 대책문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 49집, 2018; 도현철, 「대책문을 통해 본 조선초기 군주성학론: 정도전과 김익정을 중심으로」, 『동방학지』 183집, 2018.

- 9) 특히 정조 대에 작성된 책문(策文)은 과책의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에 의도적으로 역행한 측면이 있다. 양원식, 「정조『문자책문(文字策問)』에서의 문자학제설에 대한 논의 (1)」, 『민족문화연구』 45집, 2006; 김동민, 「正祖의『策問:春秋』를 통해 본 조선조 春秋學의 문제의식」, 『東洋古典研究』 56, 2014; 김현옥, 「정조(正祖)의 책문(策問)에 나타난 애민사상(愛民思想) 연구(研究)」, 『漢文古典研究』 17, 2008; 「정조(正祖)의 인재관(人材觀) 연구(研究) - 『책문(策問)』을 중심(中心)으로」, 『漢文學論集』 28, 2009; 「『책문(策問)』에 나타난 정조(正祖)의 학문관(學問觀)」, 『漢文古典研究』 21, 2010; 장진엽, 「18세기 후반 文字學(문자학)을 둘러싼 논점들 - 正祖(정조)의 文字策(문자책)과 이에 대한 對策(대책)을 중심으로」, 『南冥學研究』 39, 2013; 백진우, 「책文의 정치적 활용성에 관한 시론 - 정조시대 이가환의『蕭何大起未央宮論』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 57, 2014; 윤재환, 「논난(論難)과 필화(筆禍)를 통해 본 조선 시대의 책문(策文)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 속 책문(策文) 논난(論難)과 필화(筆禍)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 68, 2017.

의 전반적 특징과 대략적인 역사적 변화 경향이 밝혀졌다.¹⁰⁾ 조선 후기에는 과책의 정식이 세분화되고, 정형화되는 가운데, 각 내용 단락 간 긴밀한 연락 관계가 강조되고 있다는 사실도 지적되었다.¹¹⁾ 하지만 조선 전기(全期)를 다루는 연구들의 특성 상, 조선 후기라는 특정한 시기의 과책 문체 특징과 글쓰기 문제에 예각화된 시각과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또한 과책 참고서나 과책 모음집 등 과책과 관련한 여러 문헌들이 다각적으로 검토되고 활용되지 못해 분석이 단편적인 한계도 있었다. 최근 들어서는 과문(科文)과 관련된 여러 문헌 자료들이 소개되고 있고,¹²⁾ 글쓰기 형식의 관점에서 실제 과책 작품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¹³⁾

이에 본고는 조선 후기에 작성된 과책 작법 참고서인 『策型』과 『駢儷華藻』의 과책 작법에 대한 기술들을 검토하여, 당대 과책 문체의 일반적인 내용 구성 방식을 재구성 해 볼 것이다. 『책형』과 『변려화조』는 현재까지 발견된 과책 참고서 중에서 그 내용이 가장 상세하고 체계적이다.¹⁴⁾ 특히

10) 과책을 포함하는 과문 글쓰기 관점의 박사학위논문으로 金東錫, 『朝鮮時代 試券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박재경, 『조선시대 策文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4; 이상욱(2015b)이 있다.

11) 이상욱(2015b) 186~188면 참조.

12) 황위주, 『『離騷遺香』을 통해 본 조선후기 '科賦'의 출제와 답안 양상』, 『대동한문학』 40집, 대동한문학회, 2014; 허경진·최영화, 『科試 참고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受驗 문화의 한 국면 - 科文 規式 참고서를 중심으로』, 『洙上古典研究』 제40집, 2014; 박현순, 『조선시대 과거 수험서』, 『한국문화』 69집, 2015; 박현순,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출제』, 『규장각』 48, 2016; 박선이, 『정조의 『瓊林文喜錄』 편찬과 그 의의』, 『Journal of Korean Culture』 40, 2018; 박선이, 조선 후기 科文選集 儷林에 대하여 - 자료 개관 및 가치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 50, 2020.

13) 강혜중, 『계유년(1633) 法制策 검토』, 『한국민족문화』 75집, 2020.

14) 이상욱(2015b)에서 다수의 과책집과 본고의 연구 대상인 『책형』과 『변려화조』가 간단하게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상욱(2017)에서는 과표(科表) 문제에 관한 분석에서 『변려화조』를 보조 자료로 활용하였다.

『책형』은 18세기 초반, 『변려화조』는 19세기 초반으로 대략의 작성 연대가 특정된다는 점에서, 당대 수험생들의 과거 시험 대비 공부 방식과 출제 및 채점 경향 등을 시대적 맥락에서 살펴 볼 수 있다. 본고는 양 문헌에 대한 내용 소개를 겸해, 과책 작법 요령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조선 후기 과책의 형식화 문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 『策型』과 『駢儷華藻』

『책형(策型)』은 장서각 소장의 과책 참고서 문헌으로 총 3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제(表題)는 ‘策型一’, ‘策型二’, ‘策型三’으로 되어 있으나 권수제(卷首題)는 각각 ‘策型上’, ‘策型下’, ‘策型補遺’로 되어 있다. 제1책과 제2책이 먼저 상하권으로 기획·작성되었고, 제3책은 나중에 추가된 듯하다. 제1책은 「허두규(虛頭規)」, 「중두규(中頭規)」로, 제2책은 「축조규(逐條規)」, 「대저규(大抵規)」, 「당금규(當今規)」, 「설폐규(設弊規)」, 「구폐규(球弊規)」, 「편종규(篇終規)」, 「총론(總論)」으로, 제3책은 「전편총론(全篇總論)」, 「전편격식(全篇格式)」, 「전편함용문자(全篇含用文字)」, 「구폐편종규(球弊篇終規)」, 「전편동인(全篇東人)」의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정식 단락 규(規)에는 각 단락의 특성과 작법을 설명하는 내용이 먼저 소개된다. 『책형』에서는 크게 세 가지 문헌에서 인용되고 있는데, 『동인(東人)』과 『우(又)』, 그리고 『여암(旅庵)』이라는 문헌으로 출처가 표시되었다. 여기서 『동인』은 이미 소개된 『책문준적』의 과책 정식과 소수의 자구(字句) 출입을 제외하고 거의 같다.¹⁵⁾ 단 이 내용은 『책형』의 편집 차례에 따라 각 정식 단락 별로 해체되어 배치되어 있다. ‘허두’와 관련된 내용은 『책형』

15) 최식(2009) 참조.

의 허두규에 배치되고, ‘중두’ 관련 내용은 중두규에 배치되는 식이다.

작법 소개에 이어 해당 단락의 모범 예들이 절취되어 인용된다. 예컨대 허두규 뒤에는 여러 모범 작품의 ‘허두’만 절취되어 인용되고, 각각의 작품 앞에는 책문(策問)이 1-2행 정도로 간단하게 요약·제시되어 있다. 대부분의 작품에 작자 표시가 없으나 간간히 작자가 기재된 경우가 있는데, 이를 살펴보면, 윤봉조(尹鳳朝, 1680-1761), 권부(權扶, 1688-?), 오광운(吳光運, 1689-1745), 허채(許采, 1696-?), 오익현(吳翼顯, ?-?), 손명래(孫命來, 1664-1722), 김창협(金昌協, 1651-1708), 최창대(崔昌大, 1669-1720), 남하정(南夏正, 1678-1751), 허반(許槃, 1698-?), 김석주(金錫胄, 1634-1684), 권이진(權以鎭, 1668-1734) 목천현(睦天顯, 1669-?), 이동표(李東標, 1644-1700) 등이다. 윤봉조와 오익현의 ‘허두’에는 이례적으로 시험 정보와 성적이 적혀있다.¹⁶⁾ 이 작자들의 생년(生年)과 문과 급제년 등을 감안해 보면, 수록된 작품들은 대략 17세기 후반에서 18세기 전반 사이에 작성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책형』은 대략 1730년대 이후에 편집된 것으로 유추해 볼 수 있다. 하지만 가령 1750년대에 편집된 것이라면, 시제(試題)나 작법 경향, 이른바 시호(時好)에 비교적 민감한 과책 문체의 특성상 1730년대 이후 작품들을 신지 않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이 『책형』은 대략 1720-30년대를 전후하여 편집되었을 가능성이 많다.

『책형』 1, 2책의 편집 방식은 『동인』, 『여암』 등의 작법 설명과, 당대에 실제 작성된 과책을 수록한 문헌을 놓고, 정식 단락 별로 해당 내용을 절취해 재구성하는 식이다. 한 세대 정도 이전 작자들의 작품들을 기록한 『책문준적』¹⁷⁾은 수험생들이 먼저 과책 단락 구성의 대강을 전체적으로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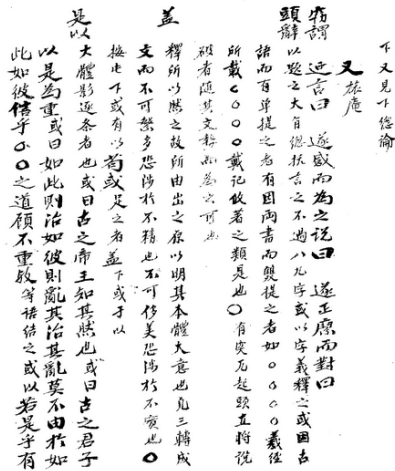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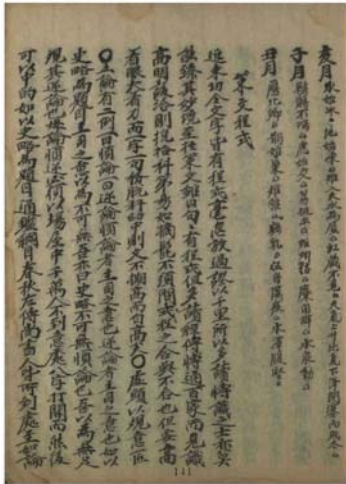
16) 윤봉조는 乙酉 증광 회시에서 二下, 오익현 丁丑, 증광 초시, 2소에서 三中을 받았다고 되어 있다.

17) 유독 중두규에 인용된 작품들은 『책문준적』에 수록된 작품과 겹치는 경우가 많다.

하고 나서 실제 작품의 전편(全篇)들을 보게 되어 있다. 이에 반해 『책형』에서는 각 정식 단락의 설명을 보고 바로 해당 정식 단락의 모범 예문들을 볼 수 있다. 『책형』에서는 특히 ‘허두’ 부분이 강조된 것을 볼 수 있는데, 허두규에 예로 인용된 작품 수가 35편으로 가장 많다. ‘중두’는 20편, ‘축조’ 9편, ‘대저’ 8편, ‘구폐’ 3편, ‘편종’ 1편, 총론 8편이 인용되어 있다.

『책형』 3책은 과책의 전체적인 구성을 설명하는데 주안점이 맞춰져 있다. 과책 참고서의 작법 설명 방식이 변화하고 있는 정황을 보여준다. 『전편총론』은 각각의 정식 단락에 대한 객관적 설명으로, 대략 『책문준적』의 설명과 방식이 유사하다. 『전편격식』은 각 단락을 이끄는 상황이나 논리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상투구의 예를 한두 개씩 제시하면서, 과책의 논리 구성의 전체적인 틀을 설명한다. 『전편함용문자』에서는 각 정식 단락별로 상투적으로 쓰이는 문장들을 여러 글들에서 인용해 제시해 놓았다. 이후에는 제2책에서 비교적 소략하게 다루어진 ‘구폐’와 ‘편종’ 부분을 보충하는 의미로 9편의 과책문의 ‘구폐+편종’ 단락들을 수록하였다. 마지막으로 ‘樂’과 ‘人生而靜’에 대한 과책문 두 편의 전문(全文)을 인용하였는데, 각 정식 단락을 표시해 놓았다. 요컨대 『책형』 제3책의 전체적인 항목 구성은 과책 작법의 추상적 설명으로부터 점차 더 구체적인 예들을 제시하는 차례를 지낸다.

그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김창협, 김석주, 이동표 등 전(前) 세대의 과책에서는 유독 ‘중두’가 강조되었던 상황과 관련이 깊어 보인다. 실제로 이들의 과책문을 수록한 『책문준적』의 맨 앞에 나오는 작법 설명에서 ‘중두’에 관한 설명이 가장 자세하며 내용도 가장 많다.



[그림 1] 『策型』(右, 장서각, 37a면)의 중두규 설명과
『駢儷華藻』(左, 국립중앙도서관, 141면)에서 제시된 과책 총론

『변려화조』는 주로 과표(科表)의 정식을 설명해 놓은 문헌인데, 마지막 부분에 「책문정식(策文程式)」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의 중간에는 국휘(國諱) 항목이 있는데, 역대 조선 왕의 묘호(廟號), 이름, 자(字)가 열거되어 있다.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로부터 영종대왕(英宗大王), 정종장헌(正宗莊孝), 순조[寧], 그리고 순조의 세자[吳, 德寅], 세손[奭]까지 소개되었다. 이를 통해 이 문헌이 편찬된 시기가 순조대(1800-1834)임을 알 수 있다.

『변려화조』에서 소개된 「책문정식」은 과책의 각 정식 단락 별로 작법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이 작법은 동 도서관 소장의 『대책(對策)』(古 3652-22)에도 같은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이 ‘책문정식’은 당대에 나름 널리 보급된 과책 작성법인 듯하다. 대략적인 내용 구성은 과책 정식의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다. 과책총론-허두-중두-축조-대저-아동-당금-설폐-구폐-편종-과책총론의 순서이다.

‘허두’는 크게 ‘입론(立論)’, ‘희(噫)’, ‘수연(雖然)’, ‘우야(愚也)’, ‘허두총론’, ‘허두분량’¹⁸⁾ 등으로 하부 항목이 설정되어 있는데, ‘입론’은 ‘허두’의 논리 구축 방식을 설명하며, 순론(順論)과 역론(逆論)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어 ‘噫’, ‘雖然’, ‘愚也’로 설정된 소단락의 구성방식을 설명하였다. ‘허두총론’에서는 ‘허두’ 소단락들이 다른 정식 단락과 맺는 의미 관계를 자세히 설명하였다. ‘중두’는 크게 ‘절위(竊謂)’, ‘개(蓋)’, ‘수연(雖然)’, ‘희(噫)’, ‘연즉(然則)’, ‘중두총론’으로 각 항목이 구성되었다. ‘竊謂’부터 ‘然則’까지의 내용은 『책형』에서 제시되었던 중두규와 대동소이하다. ‘중두총론’에서는 ‘허두’와 마찬가지로 전체 과책문의 정식 단락의 내용과 내용적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중두’의 정식은 질문 내용에 따라 바뀔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축조에서는 주로 수사적(修辭的) 기술에 대해 설명하였고, ‘대저’, ‘아동’, ‘당금’ 단락은 비교적 간단하게 설명하였다. ‘대저’, ‘아동’, ‘당금’ 단락이 과책문에서는 다분히 형식적인 구색을 맞추는 부분임을 알 수 있다. ‘설폐’에서는 ‘시의(是宜)’와 ‘부하(夫何)’로 구성되는 단락을 설명하고, 대략의 기술 내용을 설명하였다. ‘구폐’는 ‘수연(雖然=救措)’과 ‘성원(誠願=救弊)’, ‘명견(明見) 또는 해단(奚但)’ 등의 문장을 이끄는 상투어로서 ‘구폐’에 종속된 소단락 구성을 설명하였다. ‘편중’에 대해서는 특별한 작법이 없다고 하면서, 길게 하지 않을 것을 주문하고 있다.

18) ‘허두총론’과 ‘허두분량’은 본문에 나온 표현이 아니라, 필자가 내용을 감안해 항목의 제목을 붙였다.

3. 조선 후기 과책 작법 요령의 특징

3.1 허두(虛頭)의 강조

근체(近體)는 혹 신기하게 하거나 또는 분량을 많게 하기도 하는데, 이것은 진실로 책가(策家)의 병폐이다. 하지만 과목(科目)에서 실정(實情)을 잊어서는 안 되며, 이런 시호(時好)를 전적으로 배격하면 안 된다.¹⁹⁾
(『책형』 1책 虛頭規, 5면)²⁰⁾

18세기 초반에 작성된 위의 허두규는 ‘허두’를 늘려 쓰는 것을 ‘시호(時好)’라 지칭하며, 이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 이 『책형』에서는 전반적으로 ‘중두’의 중요성이 자주 언급되는데, 실제로 18세기 초반까지는 ‘중두’가 중요시 여겨졌다. 하지만 점점 ‘허두’가 중요한 단락이 되어 간 정황을 볼 수 있다. 점점 길어지는 ‘허두’에 대해서는 18세기의 여러 과폐에 대한 논의에서 언급되고 있으며, 실제 작품들을 살펴봐도 ‘허두’의 분량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다. 19세기 초중반에 작성된 『변려화조』에서는 ‘허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고인(古人)의 취사(取士) 방법은, 혹은 허두를 취하기도 했고, 혹은 중두, 혹은 구폐를 취하기도 했다. 요즘은 단지 허두 2-3행 안에서 결판난다. 이와 같다면, 삼행 안에 눈에 들지 못하면 문산(文山, 文天祥)이 초고를 쓰고 성재(誠齋, 楊萬里)로 하여금 윤색하게 한다 하더라도 도움이 되지

19) “近體或欲奇且多, 此固策家之病也, 未能忘情於科目, 不宜全背時好.”

20) 『책형』과 『변려화조』는 각각 장서각과 국립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검색 가능하며, 원문 이미지를 볼 수 있다. 본고에서 표시한 면 수는, 『책형』은 표지(제1면)에서 시작한 면 수(다운로드 받은 PDF파일 상 페이지)이며, 『변려화조』는 국립중앙도서관 제공 이미지 파일 하단에 표시된 면 수이다.

않는다. 기두(起頭)에 임해서는 특별한 생각에 착의하고, 그것으로써 식견의 넓음과 입론의 고고(高古)함을 보인다면, 중두 이하에서 판에 박은 듯한 글을 써도 괜찮다.²¹⁾ (『변려화조』 策文程式 147면)

18세기 초반 이전에는 ‘중두’가 중요하게 생각되어 ‘중두’ 내용을 ‘是故’, ‘雖然’, ‘嗚呼’, ‘然則’ 등의 문장부사를 통해 내용을 분절하였다.²²⁾ 허두가 중요해지자 허두에도 역시 이러한 문장 부사들을 활용해 문단 구성 틀이 만들어졌다. 19세기 편집된 『변려화조』에서는 ‘何者’, ‘噫’, ‘雖然’이라는 투식어를 활용해 크게 세 내용 단락으로 분절하였다. 이 세 단락의 앞에는 ‘기두(起頭)’가, 뒤에는 ‘愚也’가 위치하게 된다.

‘何者’ 밑에 첫 번째 내용(一轉)이 된다. 시작하는 곳은 단지 바로 위 기두(起頭)를 따라가는 것으로 할 수 있다. 혹은 대어(對語)를 사용해도 무방하나, 구법(句法)은 긴요하게[精緊], 의론(議論)은 시원하게[高爽], 구자(句字)는 해박(該博)하도록 힘쓴다. 또 일설(一說)처럼 장대할 필요가 없으니, 삼행(三行)이 넘으면 주사가 싫증나 버린다. 삼행 안에서도 구법이 서로 비슷한 것을 꺼리니, 상하가 짝으로 비슷하면 주사가 역시 싫증나 버린다.

‘噫’ 밑은 두 번째 내용(再轉)이 되니, 이를 속칭 ‘신발 고쳐 신기(納履)’라 한다. 비유하자면 국수를 만들 때 곁(국수)은 호면(好麵)으로 하되, 안(국물)에는 잡물(雜物)을 사용하는 것과 같다. 소 뼈, 닭 뼈, 생선 머리, 채소 뿌리로 (국물) 맛을 낼 수 있다. 따라서 3-4행을 모두 고문(古文)을 사용하거나, 비유(譬喩)를 써도 된다. 단 구법은 신기(新奇)함을 힘쓴다.

21) “古人取士之法, 或取虛頭, 或取中頭, 或取救弊, 今則只決於虛頭三兩行之內, 若此三行不入眼, 則雖使文山草創, 誠齋潤色, 無益. 預於起頭時着意別念, 以示識見該洽設論高古, 而中頭以下雖依樣畫葫亦可.”

22) 이상욱(2015b), 169~170면 참조.

‘雖然’ 이하가 세 번째 내용(三轉)이 된다. 이곳에서는 문목의 내용으로 바로 꺾어 들어가며, 은미하게 구폐의 내용을 세워 암시한다. 단 구폐의 재료가 바로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데, 이는 주사가 기두(起頭)의 내용을 생각하며, 결미(結尾) 부분을 가볍게 여기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²³⁾

(『변려화조』 策文程式, 143면)

첫째 단락[一轉]은 ‘何者’이다. 통상 대책의 첫 부분[起頭]에서 글 전체의 대지(大旨)를 표현할 수 있는 전고를 인용하거나 자기의 논의를 제시하는데, ‘何者’는 이에 이어지는 부분이다. 실제 책문에서는 ‘何以言之’ 또는 ‘何者’로 쓰이며, ‘(위 기두 내용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같은 뜻이 된다. 여기에서는 말을 간단하게 하여 직설적으로 말 하되, 문장에 장단의 변화를 주어 주사가 싫증나지 않도록 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단락[再轉]은 ‘噫’이다. 이 부분은 ‘何’에서 제시된 내용에 대한 글쓴이의 평가를 다소간의 감정을 섞어 표현한다. 이 참고서는 이 부분에 대해 국수에서 국물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비유하였다. 중요한 논리적 고리를 구성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인용이나 비유, 찬탄 등을 통해 글쓴이의 주제에 대한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해 전체적인 분위기를 구성하는 부분이다. 이 참고서는 이 부분에서 구법(句法)을 신기(新奇)하게 가져갈 것을 권하고 있다. 셋째 단락[三轉]은 ‘雖然’이다. 이 부분에서는 직접적으로 글 쓸 내용의 주제를 언급한다. 단 주제를 너무 노골적으로 노출시키지 않도록 제안하고 있다. 이어

23) “何者下是爲一轉. 起意則只得逐上起頭說去. 或作對語無妨, 然句法務要精緊, 議論務要高爽, 句字務要該博. 又不須長大若一說, 過三行 則主司厭棄之. 三行之內, 句法亦忌相似, 句法上下隻相似, 主司亦厭棄之矣. 噫以下是爲再轉. 此是俗謂之納履. 如作湯餅, 表以好麵, 而裏用雜物也. 牛骨鷄骨魚頭以菜根, 皆可助味, 故三四行內, 雖全用古文亦爲全用譬喻亦可. 但句法務要新奇. 雖然以下是三轉. 此處折旋向問目中, 去而微微隱映, 設救弊意思. 但不可露出救材, 恐爲主司所輕結尾處, 回照起頭意.”

‘愚也’는 전대부터 내려오는 허두 말단의 상투적 표현으로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평소에 생각한 바가 있으니 어찌 대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와 같은 내용이 들어간다.

본래 ‘허두’는 그 명칭에서 의미하는 바처럼, ‘비어 있다’는 것인데, 이는 ‘중두’ 이후의 다른 단락과 달리 답안의 실질적 내용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허두’는 집사선생(執事先生)이나 왕 등 출제자의 책문(策問) 내용을 평가·칭양하고, 답안 작성자 자신에 대한 검사를 형식적으로 진술하는, 말하자면, ‘답안’ 쓰기 전 시험에 임한 주체의 발화이다. 그리고 “오늘 좋은 질문을 받아, 부족하지만 어찌 몇 마디 진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와 같은 상투적인 말로 마무리되었다. 하지만 ‘허두’가 중요한 부분이 되면서, 조선 후기 ‘허두’는 ‘전체 과책문의 논리전개 요약’이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답안 내용이 시작되는 ‘중두’의 내용과 다소 겹치게 되었다.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허두’의 초점은 왕 또는 집사선생의 책문(策問)에 대한 평가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3.2 수사법(修辭法)

두 참고서에는 ‘더 높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수사법(修辭法)²⁴⁾이 자세

24) 수사법(修辭法, rhetoric)의 개념은 한 가지로 정의하기 힘들는데, 크게 문학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와 철학적, 또는 논리학적 의미로 쓰이는 경우로 나뉜다. 대략 전자는 비유법, 강조법 등 주로 문체(文彩)와 관련된 기술을, 후자는 삼단논법(三段論法)과 같은 논증의 방법을 지칭한다. 이들은 주로 서양의 문학·철학의 문맥에서 생겨난 기법, 또는 그에 대한 학문이므로, 이 개념을 엄밀하게 조선의 과문에 적용시키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일정한 결론을 효과적으로 도출하고 설득시키기 위한 글쓰기상의 기법’이라는 다소 느슨한 개념을 가지고 수사법에 접근하고자 한다. 여기에는 논리의 진행, 문단·문장의 배치, 전고의 인용, 문맥의 구성 및 문장의 수식(修飾) 방법이 포괄된다. 이렇게 본다면, 조선의 과책 참고서는, 물론 제한된 조건(시험) 하에 형성된 것이긴 하지만, 그 전체가 수사법에 관한 논의이다.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2000 참조.

하게 기술되어 있다. 시제의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논리 구축 방법이나 전략, 또 전고의 활용 방법, 구법 등에 대한 다양한 해결책이 제시되어 있다. 『변려화조』에는 특히 ‘허두’의 수사법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다.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허두의) 입론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순론(順論)이라 하고, 하나는 역론(逆論)이라 한다. 순론은 주사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역론은 주사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다. 예컨대, 사략(史略)을 제목으로 삼고, 주사의 뜻이 이를 없앨 수 없다고 하는데, 나 역시 없애서는 안된다고 하는 것이 순론이며, (사략은) 볼 것이 못된다고 하는 것이 역론이다. 순론과 역론을 막론하고, 반드시 과장(科場)의 많은 사람들이 도달하지 못하는 뜻으로써 분명히 보인 후에야 적중(的中)할 수 있다. 만약 사략(史略)이 제목이 된다면, 『통감강목(通鑑綱目)』이나 『춘추좌전(春秋左傳)』, 『상서(尙書)』 같은 것(을 인용하는 것)은 사람들 생각이 모두 미치는 곳이다. 가령 <논어>나 <맹자> 역시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모두 다 제외하고, 도리어 의서(醫書)나 병서(兵書), 강산풍월(江山風月) 등 다른 사람들이 생각지 못하는 내용을 꺼내 첫 부분에 쓸 것이니, 이것은 백발백중의 요법(要法)이다. 하지만 첫 머리를 일으키고자 할 때에는 먼저 상세하게 문목(問目)을 살피고, 주사가 물어 본 바를 통관해야 하니, 주의(主意)가 어떤 질문에 있는지, 구폐(救弊)에는 어떤 도리(道理)를 쓸 것인지, 축조(逐條)에 묻는 것은 몇 개인지, 이것은 어떤 일, 어떤 설(說)을 묻은 것인지, 살펴본 연후 이로부터 구폐의 재료를 정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배속에 감추고, 신중히 누설하지 않으며, 이것으로써 구폐에 영향을 주면서 기두를 잡아 쓴다면, 거의 제외(題外, 제목과 관련 없는 글을 쓰는 것)에 빠질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범축(犯逐, 단락 구성의 실패를 뜻하는 듯)했다는 지적을 면할 수 있다. 가령 단지 문목(問目) 중 한 두 글자만 보고, 바로 자기 논의를 세우게 되면, 서쪽 진(秦)에 가지 못하고, 반드시 남쪽 월(越)에 가거나 북쪽 연(燕)으로 달려가게 되니, 신중해야 한다.

성현의 격언이나 가르침같이 편하하면 안 되는 내용이 문목에 제시되어 있다면, 부득불 순론으로 할 수 밖에 없다. 그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다. 혹 선유의 설을 인용하기도 하고, 혹은 자기의 의견으로 입론하거나, 또는 제가서(諸子書)를 인용한다. 선유의 설을 인용하면 십여 자를 넘으면 안 되니, 대개 선유의 설이 길면 주사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의견으로 논의를 세우려면 반드시 비유를 취하는데, 가령 단목(單木)이나 금수(禽獸), 강산(江山), 월로(月露) 같은 것들을 모두 인용할 수 있다. 제자서는 문목 가운데의 격언과 서로 어긋나는 것을 인용해야 하는데, 기두에서 한 행 정도를 인용하고 급격히 자기의 의견으로 그 오류를 타파하면 백발백중이다. 이것이 순론 중 역론이다. 역론은 가령 관실(官室), 기용(器用), 산천(山川), 인물(人物) 등이 문목에서 언급되었다면 마땅히 주사의 뜻을 살펴 그것을 역으로 꺾는다. 혹은 자기의 의견으로써 논의를 세우거나 선유의 설을 인용하는데, 이 경우 한 행을 넘지 않도록 한다. 과책은 역을 귀하게 여기지 순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²⁵⁾

(『변려화조』 策文程式, 141~143면)

- 25) “立論有二例. 一曰順論, 一曰逆論. 順論者(順)主司之意也. 逆論者(逆)主司之意也. 如以史略爲題目, 主司之意以爲不可無, 吾亦曰史略不可無順論也. 吾以爲無足觀其逆論也. 毋論順逆, 必須以場屋中, 千萬人不到意處, 八字打開, 而然後可以中的. 如以史略爲題目, 通鑑綱目春秋左傳尚書, 人皆所道處 至如論魯(語)孟子, 亦必有用之者矣. 吾卽一齊掃去, 却披醫書兵書江山風月等, 千萬不近處, 作頭來, 此是百發百中之要法也. 雖然欲起頭時, 先須詳看問目, 一通觀主司所問, 主意在那間, 救弊當用那道理, 逐條所問幾箇, 是謀事某說, 然後自可以救弊材料. 須先藏置腹裏慎勿泄露, 乃以救弊影響, 把作起頭, 庶幾不落題外, 而亦免犯逐之譏矣. 若只看問目中一兩字, 便已立論, 則其不西入秦, 必南走越北適燕, 慎之順論. 如以聖賢格言至訓, 不容貶意者 揭爲問目, 則不得不順論. 其法有三. 或引先儒說, 或以己意立說, 或引諸子書也. 引先儒說, 則無得過中(十)餘字, 蓋先儒說太長, 主司厭看矣. 以己意立說, 則須取譬喻如單木禽獸江山月露, 皆可引用. 諸子書則須取諸子說, 如問目中格言相悖者, 起頭而纔滿一行, 急以其意打破彼說之謬, 則當百發百中矣. 此則順論中逆論也. 逆論, 官室器用山川人物之類, 發爲問目, 則看主司之意, 而逆折之. 或以己意立說, 或引先儒說, 而無過一行, 策貴逆不貴順.”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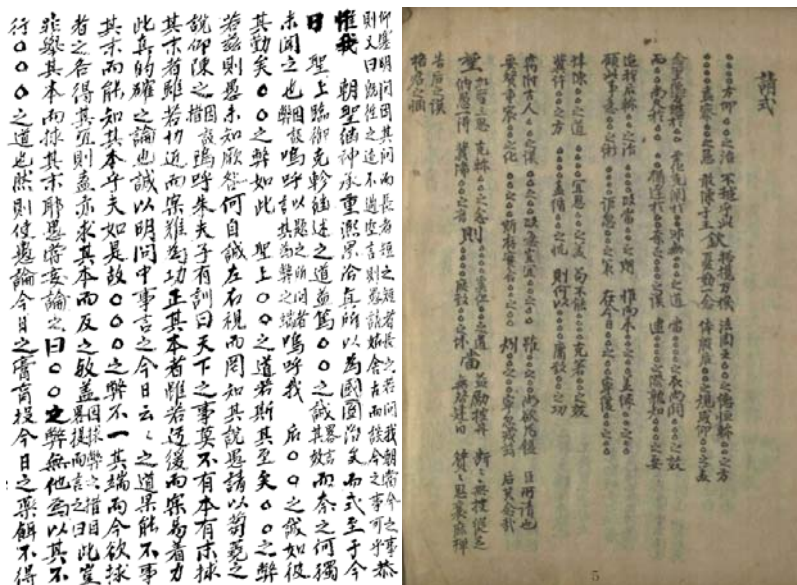
이 ‘허두’에 대한 설명을 보면, 논리 구축 방법뿐만 아니라 전고의 인용 방법, 비유법, 구법(句法), 적절한 분량 등에 대해 자세한 조언을 하고 있다. 설명 분량도 눈에 띄게 많아졌지만, 『책형』의 비교적 건조한 설명 방식에 비해, 기술자의 주관적 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글 자체의 완성도보다 시험에서의 성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이렇게 하면 백발백중”이라든지 하는 “이렇게 해야 주사(主司)의 눈에 들 수 있다”와 같은 표현들이 그 예이다.

문제는 이렇게 늘어난 수사법에 대한 기술에 비례해 그 내용에 변통할 여지가 없어진다는 점이다. 물론 이러한 ‘주관적’ 지침들이 그대로 시험장의 답안 작성 과정에서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초학자들이 이러한 참고서들을 통해 과책문 글쓰기를 공부한다고 했을 때, 이 지침들은 상당히 광범위한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런 지침들은 일종의 글쓰기의 틀로서 작용해 실제 시험장에서는 답안 작성 시간의 절약과 ‘효율적인’ 내용 구성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발달된 수사법은 점점 ‘수사’의 더 세세한 ‘법’을 제시함으로써 과책의 형식화를 가속시켰을 것이다.

3.3 투식(套式)

셋째는 문장 구성 형식, 다시 말해 투식의 제시이다. 이전의 대략적인 과책 설명방식은 ‘중두’는 어떻게, ‘구폐’는 어떻게 어떻게 써라와 같은 외부적 지침이었다. 하지만 『책형』 제3책의 『전편격식』에서는 일종의 ‘답안의 모범’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는 전대에 비해 정식(程式)을, 더 작은 단위의 소단락 또는 문장 단위로 구성함으로써 가능해졌다. 이 모범답안은 요즘 말로 ‘템플릿’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재 사교육 시장에서 논술고사나 토플 따위의 외국어 능력 시험의 작문 시험 준비에도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다. 이 같은 설명 형태는 비교적 형식적 틀이 강하게 구성되

어 있는 과표(科表) 참고서에서 주로 보이는 형식 설명 방법이다.²⁶⁾ 과표의 글쓰기 틀은 각 단락과 구에 상투적으로 들어가는 연결어, 문장부사와 ‘○○’ 표시를 조합해, 수험생들이 한 눈에 과표의 형식적 구성과 내용의 논리 전개를 알 수 있으며, 이 형식의 학습을 통해 효율적으로 다양한 시제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과책은 과표와 달리 기본적으로 산문인데다, 시제(試題)의 질문 형식에 답안의 형식이나 구성이 강하게 종속되는 특징이 있으므로, 과표와 같이 고도로 정형화된 논리 틀의 적용이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형』 제1책의 일부 중두규나 제3책의 「전편격식(全篇格式)」에는 이 문장 구성 형식이 제시되고 있다. (그림 2)



[그림 2] 『駢麗華藻』(右)의 과표(科表)의 투식과
『策型』 3책(左)의 과책 투식의 구폐 부분(제4행 '嗚呼'부터)

26) 이상욱(2017), 173~174면 참조.

과표의 경우처럼 정교하게 정형화 된 틀은 아니지만, ‘내용’이 없는 연결어, 내지는 문장부사 등을 활용해 글쓰기 틀을 가시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래의 예는 「전편격식」의 ‘구폐’ 투식이다.

‘嗚呼’ 시제에서 물어본 것으로써, 폐단의 단서를 말한다.

아! 우리 임금의 ○○하는 정성으로 이처럼 근신하시는데, ○○의 폐단이 이와 같고, 성상의 ○○하는 도가 이와 같이 지극한데, ○○의 폐단이 이와 같으니, 저는 그 허물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모르겠으며, 진실로 좌우를 살펴봐도 그 할 말을 알지 못하겠습니다만, 제가 청컨대, 고루한 이야기[芻蕘之說]로 우러러 진달하고자 합니다.

이어 ‘구조(救措)’를 놓는다. 아! 주부자가 가르침이 있어 이르기를, “천하의 일에는 모두 근본과 말단이 있다. 그 말단을 고치는 것은 비록 가까운 듯 보여도 실제로 공효를 이루기 힘들고, 그 근본을 바로 하는 것은 비록 멀고 힘들어 보여도 실제로는 착력하기 쉽다”고 하셨으니, 이것은 진실로 정확한 논의입니다. 진실로 질문 중 말씀하신 일로 말하자면, 오늘날 ~운운한 도는 과연 능히 그 말단을 일삼지 않아도, 그 근본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릇 이와 같은 이유로, ○○○의 폐해는 그 단서가 하나는 아니나, 지금 그것을 고치고자 하는 자가 각각 그 마땅함을 얻으면 어찌 또 한 그 근본을 구해 돌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대개(蓋)’ (이하는) 이어 구폐의 조목(措目)을 들어 간략하게 제기해 말한다. 이것이 어찌 근본을 들어 그 말단을 고치려고 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가 일찍이 망령되어 논하기를, ‘○○의 폐단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의 도를 행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하였는데, 따라서 제게 금일의 고황(膏肓: 고치기 힘든 병폐)을 논하게 하신다면, 오늘 당장 약이 되는 음식을 버리고, 부득불 ○○○로써 임무를 삼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誠能’ (아래는) 구폐의 조목(條目)으로 반복해서 말한다. (그러면) 즉 질문에서 말한 바, ○○의 폐단은 장차 바르게 구해질 것입니다.²⁷⁾

(『책형』 3책, 全篇格式, 8면)

이러한 투식을 통해 수험생들은 한 눈에 과책의 논리 구성 방법을 파악할 수 있으며, 이 논리적·수사법적 구성을 염두에 두고, 혹은 체화시키고 실제 글쓰기에 임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 한 가지는 ‘구조(救措)’에 인용된 ‘주부자(朱夫子)’의 문구²⁸⁾이다. ‘○○’이 사용된 다른 부분은 다소 추상적인 진술로서 구체적 내용 없이 전체적인 틀만 보여주는 기능을 가진다. 이에 비해 주희 글의 인용은 과책 글쓰기의 추상적 틀을 제시하는 「전편격식」의 전체 의도와는 다르게 특정인과 특정 내용이 언급되었다는 점에서 이례적이라 할 수 있다. 사실 이 주희의 ‘본말론(本末論)’은 조선 후기 과책 논리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²⁹⁾ 이 본말론은 ‘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을 다스리면 ‘말단’은 저절로 다스려진다는 대체적인 논리인데, 과책의 문맥에서 보면, 시제에서 주어지는 대부분의 구체적인 사회문제들은 ‘말단’으로 환치되고, 결국 그 문제의 ‘근본’인 왕이 스스로를 바르게 다스려야 한다는 전체적인 논리를 제공한다. 조선 후기의 많은 답안들이 이러한 본말론을 활용해 ‘구폐’ 단락에서 왕이 마음을 바르게 해야 한다는 따위의 구폐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신유학의 이른바 군주성학론(君主聖學論)의 내용이다³⁰⁾ 과책이라는 문체로 양식화 된 결과이다.

27) “**嗚呼 以題之所問者 言其爲弊之端** 嗚呼我后○○之誠, 如彼其勤矣, ○○之弊如此, 聖上○○之道, 若斯其至矣, ○○之弊若茲, 則愚未知厥咎何自, 誠左右視而罔知其說, 愚請以荀彧之說仰陳之. **因設措** 嗚呼朱夫子有訓曰: ‘天下之事, 莫不有本有末, 揀其末者, 雖若切近而實難爲功, 正其本者, 雖若迂緩而實易着力’, 此其的確之論也. 誠以明問中事言之, 今日云~之道, 果能不事其末, 而能知其本乎! 夫如是故, ○○○之弊不一其端, 而今欲揀者之各得其宜, 則盍亦求其本而反之歟! **蓋 因揀弊之措目, 畧提而言之曰** 此豈非舉其本, 而揀其末耶? 愚嘗妄論之曰: ‘○○之弊無他焉, 以其不行○○○之道也. 然則使愚論今日之膏盲, 投今日之藥餌, 不得不以○○○爲務焉.’ **誠能 以揀弊之目反復言之** 則問所謂○○之弊, 將可揀正矣.”

28) 『晦庵集』, 「與陳侍郎書」

29) 강혜종은 17세기 초반의 법제 과책에서 ‘본말론적 법제론’이 전개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강혜종(2020), 18~22면 참조.

결과적으로 이 논리 구조 하에서 조선 후기 과책 작성자들은 제기된 실제 문제에 대해, 답안에 이를 굳이 자세히 언급할 필요가 없으며, 따라서 미리 힘들여 공부할 필요도 없게 된다. 앞에서 제시한 정조의 당대 과책문에 대한 언급 중, “실제적인 일에 마음을 쏟아 미리 강구하지 않는다”는 비판은 이를 두고 한 말이다.

3.4. 내용의 일관성 강조

마지막으로 두 참고서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강조하는 바는 내용의 일관성이다.

무릇 책문의 교줄의 차이는, 기두(起頭)부터 끝까지 위를 침범하거나 밑으로 늘이지 않게 함으로써 끝까지 이르게 하고, 대의를 살펴보고, 조응에 어긋남이 없게 하며, 구성 관계를 물 셀 틈 없이 해야 하니, 이것이 거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다.

무릇 책제(策題)는 변덕스러워 알 수가 없고, 책식(策式)의 경계는 한정되어 있으나, 수주대토(守株待兔-요행을 바람)를 해서는 안 되며, 또한 교주고슬(膠柱鼓瑟-변통하지 않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모름지기 깊고 얕음을 짐작하고 선후를 잘 살핀 후에 맥락을 관통하게 하고 수미(首尾)를 통하게 해야 한다.³¹⁾ (『책형』 2책 總論, 47면)

이 ‘일관성의 강조’ 문제는 조선 후기 과책의 가장 핵심된 내용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참고서 전편에서 강조되고 있다. 사실 이 문제는, ‘허두의

30) 이른바 군주성학론의 ‘내용’은 조선의 이른 시기부터 국가 통치 이념으로써 존재해 왔다. 도현칠(2018), 131~138면 참조.

31) “凡作策巧拙間，自起頭至歸宿處，無令上侵下累，以迄於終，環顧大意，叫應無差，關結不漏，斯所謂庶幾也。凡策題之反復無常，策式之界限有定，既不可守株而待兔，亦不可膠柱而鼓瑟，須斟淺深商量先後，要使脉貫通首尾圓轉可也。”

강조, ‘수사법’, ‘투식’이라는 특징과 동일한 층위라기보다, 이 특성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바이다. 예컨대 ‘허두’나 ‘중두’를 구성하는 ‘噫’, ‘何則’, ‘雖然’, ‘竊謂’, ‘蓋’, ‘然則’ 등의 소단락들은 이후 기술되는 대단락과의 긴밀한 연락관계를 전제로 구성된 체계이다.

허두는 또 하나의 작은 책자(策子)이니, 기두(起頭)는 허두의 허두이며, ‘何則’은 허두의 중두이다. ‘然則’은 허두의 축조이며, ‘雖然’은 허두의 설페, 구폐이다.³²⁾ (『변려화조』 策文程式 143면)

중두는 한편의 정신(精神)이 된다. 따라서 과제(破題)로 하였으면 기구(起句)가 있게 되고, 강제(講題)로 하였으면 ‘蓋’자가 있게 된다. ‘是以’로는 ‘古’(축조-역자주)를 비추고, ‘雖然’으로는 ‘今’(當今)을 비추니, 한계를 세워 서로 간섭하지 않게 한다. 이는 오장육부(五臟六腑)가 몸통 안에서 각각 한 가지 기운을 주관하고, 이로써 이목구비(耳目口鼻)와 사지(四支)와 백체(百體)가 바깥에서 발동되고 운용되는 것과 같으니, 배우는 이가 가히 힘을 들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³³⁾ (『책형』 1책, 中頭規, 74면)

각 단락별, 소단락별로 제시되는 수사법 역시 그 자체가 단락의 분절과 형식화를 강화하는 한편, 한 편의 과책문 안에서의 유기적 기능을 강조한다. 논리 전개 방식, 전고 인용방법, 구법, 분량 조절 등 자세한 수사법에 대한 조언들은 기본적으로 과책문 한 편의 균형적 구성을 염두에 두고, 타 단락과의 조응관계나 전후 문장들 사이에서의 맥락적 위치를 설명하는데

32) “虛頭亦是一箇小策子。起頭者虛之虛也，何則者虛之中也，然則者虛之逐也，雖然者虛之設弊也。”

33) “中頭最爲一篇之精神，故破題則有起句焉，爲講題則有蓋字焉，是以所以映乎古，雖然所以映乎今，設爲限界不相侵洩。有如五臟六腑各主一氣於腔子之裡，而耳目口鼻四支百體得以發動運用於外，學者可不致力耶?”

초점을 둔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초두는 짧게 맺는 것을 귀하게 여기니, 혹은 반 행, 또는 1행으로 하되, 혹은 반론(反論)으로, 혹은 직론(直論)으로 한다. 그 분량의 많고 적음은 상황에 따르는데, 서너 단락이나 대여섯 단락으로 하기도 한다. 초두를 직론으로 했다면, 중간에서 반론으로 하고 마지막에 직론으로 하며, 초두가 반론이라면, 중간은 직론 또는 반론, 마지막은 직론으로 한다.³⁴⁾

(『책형』 3책, 全篇格式, 7면)

위 문장은 ‘허두’ 문단의 전체 논리 구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데, 가령 이 구성을 따른다고 하면, ‘허두’의 모든 문장들은 하나의 내용적 맥락 안에 일사불란하게 위치되게 된다.

물론 이와 같은 내용의 일관성에 대한 강조는 과책에만 강조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조선 후기에만 국한되는 이야기도 아니다. 내용의 일관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과시나 과부, 과표에서도 동일하게 보이는 현상으로, 각 문체의 정식 단락의 확립 자체가 글 내용의 일관성을 추구하는 경향에서 생겨난 것이다.³⁵⁾ 또한 과책에 한해서 말하자면, ‘구폐식’ 대책이 ‘축조식’ 대책을 대체하기 시작한 16세기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강조된 바이기도 하다. 구폐식 대책의 형식 자체가 정식 문단 간 연락 관계를 특별히 강조하는 단락 형식이기 때문이다.³⁶⁾ 요컨대 내용의 일관성의 강조는 조선 과문 전체의 거시적인 역사적 경향이자 조선 후기의 중요한 평가 기준이다. 이 조선 후기 과책 참고서는 이에 대한 메타 기술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34) “初頭短結爲貴, 或半行或一行, 或反或直, 多少隨宜, 三四轉或五六轉, 初頭直則中反末直, 初頭反則中直又反末直.”

35) 이상욱(2015b), 204~206면 참조

36) 이상욱(2015b), 171~172면 참조

4. 조선 후기 과책의 전체 내용 구성 방식

기존 연구에서 조선 과책의 ‘허두’, ‘중두’, ‘축조’, ‘당금’, ‘설폐’, ‘구폐’, ‘편중’ 등의 단락에 대한 설명은 여러 차례 제시되었다.³⁷⁾ 하지만 『책형』과 『변려화조』는 특히 ‘허두’, ‘중두’, ‘축조’, ‘설폐’, ‘구폐’ 등 주요 단락을 더 세분화된 내용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를 이용한 과책 투식은 이러한 세분된 내용 분절이 선행되었기에 가능한 설명방식이었다. 위 두 과책 참고서의 단락 분절과 구성, 그리고 지시 사항 등을 요약해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³⁸⁾³⁹⁾

정식 문단	문단 시작 상투어	문장 구성 형식 (套式, template)		주요기능/분량/수사법
虛頭	對 於 戲	起頭	답합니다. 아, ○○는 ~라 말했습니다.	인용 또는 자신의 의견
		何者	그 뜻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起頭 요지 설명, 3행 이하, 산문체
		噫	아, 이 뜻은 ~입니다.	기두 내용에 대한 개인적 감정 표출, 전고 또는 비유, 구법은 新奇
		雖然	하지만 중요한 것은 ○○입니다.	구폐 재료의 암시 (노골적 노출 자제)
		結語	제가 ○○에 대해 생각한 바가 있었으니, 어찌 말씀드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37) 최식(2009), 391~394면; 김동석(2013), 247~266면; 박재경(2014), 70~98면; 이상욱(2015a), 328~343면.

38) 이 형식적 구성은 집책(執策, 執事策)을 기준으로 한 것이지만, 몇몇 상투어구만 바꾸면 전책(殿策, 殿試策)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39) 각 정식 용어나, 제시되는 구체적인 표현들은 각 문헌마다 다른 점이 많다. 하지만 본고에서는 과책구문 형식의 세세함과, 그 대체적인 구성 경향을 파악하는 것을 목표로, 가장 일반적이라고 생각된 용어와 표현들을 두 참고서에서 임의로 선택해 제시하기로 한다.

中頭	切謂, 迺言曰	切謂	말씀드립니다. 『○○』에서는 ~라 하였 고, 『○○』에서는 ~라 했습니다.	전체 글의 논리적 근거나 이론 적 배경을 제시하는 전고성 문구 제시, 8-9자 정도로 짧게
		盖	대개 ~을 이루려면 ~하게 해야 합니다.	切謂 내용의 일반화, 3-4행, 경서나 훈고체
		是以	따라서 ~하게 하면 잘 다스려지고, ~하 게 하면 혼란스럽게 됩니다,	축조 내용(실제 잘 다스려지 고 혼란스러웠던 역사상 예) 의 일반 진술
		雖然	하지만 이에는 긴요한 방법이 있으니, ~ 로써 한 후에 ~를 가히 할 수 있습니다.	설페 내용과 연동
		嗚呼	아! ~의 중요함이어	위 진술 내용의 수렴, 감정적 분위기의 고조
		然則	따라서 ~에는 ~만 한 것이 없습니다.	구폐책의 단언, 길지 않게
逐條	請因明問 而條陳之		질문하신 조목에 따라 답하고자 합니다.	시제에서 질문된 구체적 사례 에 대한 언급, 변려구의 사용, 2-3단락(再轉, 三轉)으로 구 성 가능, 博雅와 宏辯 위주
大抵	大抵		대저 ~의 사례들은 ~로 귀결됩니다.	진술 내용 혹은 주사의 문제 의식 요약 및 부연 반복, 길지 않게
我朝	恭惟我 朝 (我太祖, 我國家)		우리 조선은 태조 이래로 ~을 계승하여 잘 다스려져 왔습니다.	찬송문자, 길지 않게
設弊	奈之何		(그런데) 성상의 정성이 이와 같이 지극한 데, 어찌하여 요즘 들어 이런 폐단이 보이 게 된 것입니까?	변려구의 사용, 길지 않게
救弊	嗚呼	總論	아, ~의 폐단은 ~의 문제입니다	
		救措 (雖然)	(주자)의 말씀을 가지고 대답하고자 합니 다. (주자)는 ~라고 말한 바 있으니, 진실 로 그러합니다.	구폐책 해결의 실마리가 되 는 전고 인용과 자신의 평가 혼합, 10행 이상
		原弊	하지만 요즘의 이 폐단은 이유가 있으니,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명료하게
		救弊	이 폐단을 구제하는 것에는 다른 방도가 없고 ○○해야 할 따름입니다. 이렇게 하 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게 됩니다.	구폐의 해결책 직접제시, 1행 정도, 명료하게
		誠願	진실로 원컨대, 성상께서 ○○하시어, ○ ○를 보이시면 폐단이 구해질 것입니다	길지 않게

篇終	愚於篇終, 更有獻焉	편의 마지막에 한 말씀 더 올리겠습니다.	길지 않게
		이 폐단의 해결은 ○○에 있으니, 그 이른바 ~의 요체는 ○○의 위에 있습니다.	
		원컨대 집사선생께서는 이를 잘 살피주시기 바랍니다. 삼가 대합니다.	

먼저 조선 후기의 ‘허두’는 책문(策問) 내용을 종합·평가하여 앞으로 기술될 내용의 논지를 보인다. ‘허두’는 먼저 ‘기두(起頭, 또는 初頭)’에서 질문된 문제를 포괄하는 전고를 인용하고, 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그 해결책을 암시하는 것으로 문단을 마무리 한다.⁴⁰⁾

‘중두’는 ‘허두’에 비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앞으로 전개될 대책문 한 편의 내용을 요약한다. ‘중두’의 첫 문장 ‘竊謂’에서는 대책문 전체의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경전 문자나, 유명 문인들의 언급 등을 인용하고, ‘蓋’에서 이를 일반화 시킨다. 예를 들어, ‘竊謂’에서는 ‘답합니다. 역경에서는 ~고 말했고, 대대례에서는 ~고 말했습니다’라고 하고, ‘蓋’에서는 “대개 역경과 대대례의 말은 ~의 의미입니다.”라고 하는 식이다. 이어 ‘是以’에서는 예컨대, “따라서 ~하게 하면 잘 다스려지고, ~하게 하면 혼란스럽게 됩니다” 같은 여러 사례들을 일반화 하는 진술이 나온다. 다음 단락 ‘축조’에서 이 ‘是以’의 내용에 조응해 실제로 역사상 ~해서 잘 다스려진 예와 혼란스럽게 된 예가 제시된다. 예를 들어, ‘是以’에서 ‘용인(用人)을 잘하면 다스려지고, 못하면 혼란스럽게 됩니다’라고 기술했다면, ‘축조’에서는 ‘당 태종은 위징을 써서 정관의 치를 이루었고, 당현종은 이임보를 써서 천하를 혼란에 빠뜨렸다’와 같은 식으로 구체적 사례를 제시한다. 같은 방식으로 ‘雖然’에서는 ‘설폐’(현재의 폐단) 내용을 일반화하며, ‘然則’에서는 구폐책(해결책)을 암시한다.

40) ‘허두’ 단락 내용은 본고 3.1, 3.2 내용 참조.

‘축조’에서는 역사상 과책문의 주제와 관련된 사례들이 제시되고, 이에 대한 포폄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사례들은 책문(策問)에서 질문이 된 사항들이고, 답안 작성자들은 중두에서 제시한 포폄의 기준을 가지고 사례들을 나열한다. 위 과책 참고서들은 ‘축조’에서 변려문 형식의 글을 쓸 것을 권유한다. 보통 ‘축조’에서 제시되는 역사적 사례들의 범위는 삼황오제(三皇五帝)의 시대로부터 대략 당송(唐宋)시대를 하한선으로 하며, 원나라의 사례도 드물게 제시되는 경우가 있다. 이후 기술될 ‘현재’의 상황(당금 또는 설폐)을 역사적으로 조망하기 위해, 명나라나 한반도의 삼국시대, 고려의 사례가 제시되기도 한다. 대부분은 책문(策問)에서 이 시기 특정 사례에 대한 질문이 있을 때에만 하나의 단락을 세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축조’ 이후의 ‘대저’ 단락은 대략 17세기 후반부터 생긴 것으로 보이는데, 대략적인 기능은 ‘축조’까지의 논의를 일단 마무리하고, 요약·갈무리 하는 부분이다.

이어지는 ‘아조’에서는 조선 태조(太祖) 이후로 역대 임금들이 나라를 잘 다스려왔고, 해당 사안에 대해 잘, 적절하게 처리해왔다는 내용이 칭양된다. 이 부분은 참고서에 따라 ‘當今’으로 표현되기도 하는데, 이는 거꾸로 이전의 사례들이 ‘古’에 해당한다는 말이다. 전책에서는 ‘중두’와 ‘아조’(혹은 ‘당금’) 그리고 ‘편중’의 앞머리에 ‘臣伏讀聖策曰’이라는 상투어를 쓰고, 책문(策問)의 해당 내용을 직접 인용하는데 ‘삼복독지법’이라 한다. 이를 보면 ‘중두’와 ‘축조’가 크게 한 묶음이 되고, ‘당금’ 이하 ‘설폐’, ‘구폐’ 단락이 하나의 묶음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구폐식 과책문 본문은 크게 ‘고’와 ‘금’의 인식적 분절을 바탕으로 삼고 있는 양식임을 알 수 있다.

이어 ‘설폐’는 시제에서 제기된 폐단들을, 당대의 맥락에서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단락이다. ‘설폐’는 통상 ‘奈之何’ 또는 ‘夫何’라는 의문부사로 시작한다. 대부분 ‘당금’부분에서 ‘이러 이러하게 조선에서 덕치가 이루어져 왔는데’(당금), ‘어찌하여 성상이 즉위한 이후로 이러 이러한 폐단이 생

기게 된 것입니까?’라는 내용적 흐름으로 이어진다. 물론 ‘설폐’의 주 내용은 바로 이 ‘이러 이러한 폐단’이 된다. 두 참고서에서는 이 부분을 장황하지 않게 정제하여 제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구폐’는 대략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 문맥에 따라 ‘구폐’ 단락을 전체를 의미하기도 하고, 아니면 실제 ‘폐단을 구(救)하는 방법’을 뜻하기도 한다. 후자의 경우는 대략 ‘구폐’ 단락의 후반부에 삽입되는 내용으로, 글 전체의 내용이 모아지는 핵심 부분이다. ‘구폐’ 단락은 다른 단락에 비해 참고서 문헌마다 분절된 소단락들의 명칭이 다른 경우가 많다. 대략적으로는 첫 부분 총론에서는 폐단을 규정하는 일반론을 전개하고, (총론) 구조에서는 이 폐단을 해결할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는 경전문구를 인용한다. (구조) 폐단의 직접적이며 구체적인 원인을 명시하고, (원폐) 그리고 ‘구폐’에서 폐단을 구할 방법을 제시하는 구조이다. 기타 ‘구폐’ 단락에 대한 설명에서 구폐 절 이후에는 ‘~을 명백하게 보이시어’(明見) 또는 ‘어찌 단지 ~뿐이겠습니까’ 같은 상투적인 첨언을 하며, 마지막에 ‘진실로 바라건대 ~’(誠願)를 붙여 마무리 한다. 혹은 ‘집사의 가르침, 또는 집사의 이른바, ~은 ~이 아니겠습니까’ 같은 말로 마무리하기도 한다.

이 구폐식 과책문의 논지 전개를 요약하면, 먼저 질문자의 질문을 요약하고, (허두) 본인 대책문의 전개를 요약 제시하며, (중두) 적시된 폐단에 대한 역사적 사례들을 언급하고, (축조) 현재 이 폐단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과 원인을 진술하고, (설폐, 원폐)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구조, 구폐) 이어 ‘편중’에서는 여의(餘意)를 진술한다. 조선 후기로 올 수록 이 글쓰기 틀은 더 세세하고 정교하게 규정되면서, 어떤 폐단의 사례들이 제시되더라도 폐단의 원인과 해결책을 마치 깔때기처럼 구폐책 하나로 집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중두’에서는 관련된 경전문구를, ‘축조’에서는 역사에서의 사례, ‘설폐’에서는 현금의 폐단, ‘구폐’에서는 현재 폐단에 대한 경전적(經傳的) 해

결 방안과 그 해결책을 제시한다. 어떤 폐단이 제시되더라도 이 경전-사서-조선-현재-경전-해결책 제시라는 고금을 훑는 사고의 경로를 강제하며, 단 하나의 해결책으로 결론이 귀결되도록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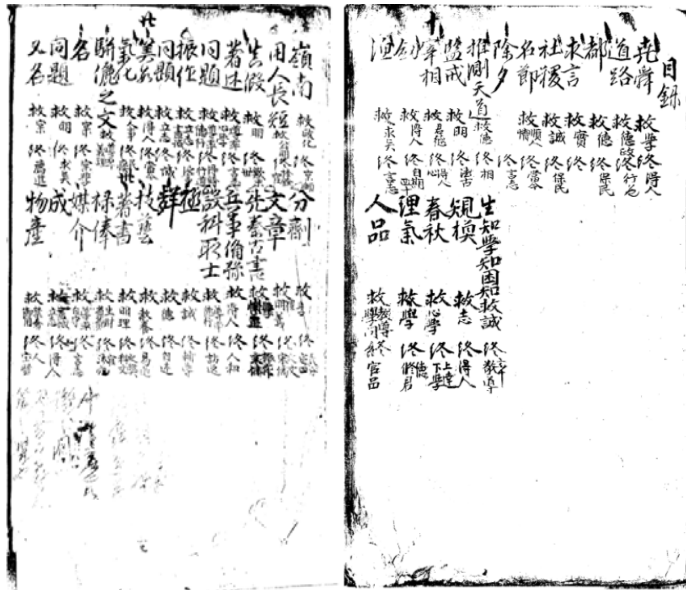
이에 『책형』에서는 다음과 같은 작법 요령을 제시하고 있다.

책문 글쓰기를 배우고자 하는 자는 먼저 구폐(救弊)를 배운다. 제목 중에서 먼저 (구폐규를 보라) 허두, 중두, 축조, 설폐 매 단락 마지막에 간략하게 구폐자(救弊字)를 써 놓고, 그것으로써 조응(照應)의 바탕으로 삼는다. 이 렇게 하면, 수미(首尾)가 통괄되고, 자연스럽게 통일성을 갖춘 글이 되며, 또한 스스로도 막힘이 없게 된다.⁴¹⁾ (『책형』 2책 總論, 47면)

각 단락 끝에 구폐자(救弊字)를 써 놓고, 단락을 쓸 때 항상 구폐자를 옆두에 두면서 글을 구성하라는 구체적인 글쓰기 지침이다. 다시 말해 이 구폐책은 구폐식 과책의 정식(程式)과 모든 논지 전개를 구조화 시키고 있다. 구폐자는 과책문의 ‘결론’과 같은 것으로 왕에게 결국 ‘이것’을 해야 한다고 요구하는 내용을 한 두 글자로 축약한 것이다. 17세기 실제 시험장에서 작성된 집책을 모아 놓은 『동책』(장서각, D2F 160)이라는 책(그림3)의 목록을 보면, 각 책문(策文)의 주제 아래 해당 책문에 쓰인 구폐자들이 제시되어 있다. 구폐자로 ‘學’이 되어 있으면, ‘구폐’ 단락에서 임금에게 ‘배울 것’을 특정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여기 제시된 ‘구폐’자들을 보면, 대략 ‘學’, ‘德’, ‘實’, ‘誠’, ‘明’, ‘得人’, ‘化’, ‘志’, ‘節用’, ‘教養’ 정도의 범주로 나눌 수 있다. 질문의 주제는 각 책문 별로 다양한데, 이 질문에서 주어진 다양한 폐단에 대한 해결책은 대개 왕의 윤리적 각성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귀결된다. 모든 구체적 폐단의 원인이 왕의 윤리적

41) “欲學做策者先學救弊, 先於題目中云云(見救弊規), 而或於虛中逐設, 每段之末略略提起拯弊字, 以爲照應之資, 如是則首尾該括, 自然爲一統文字, 亦自無妨.”

결함에 있다는 내용을 이미 전제하고 있으며, 논리 진행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틀을 여러 방면에서 강화하고 있다.



[그림 3] 『동책』(장서각, D2F 160)의 목록 면.
각 과책문의 제목 아래에 구폐자(敍弊字)가 표시되어 있다.

5. 나오며

본고는 조선 후기에 작성된 과책 참고서 두 종을 대상으로 그 내용을 분석하고, 이 참고서들에서 강조하는 글쓰기 방식을 검토함으로써, 조선 후기 과책 문체의 역사적 성격을 분석하였다. 『책형』과 『변려화조』에는 18세기 이후 과책의 작법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전 시대 과책문 작성법은 과문 모음집의 대략 한두 장 정도를 할애해 정식 단락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간단하게 주지시키는 것에 불과했으나,⁴²⁾ 18세기 이후로는 상당한 분량의 참고서가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 참고서들은 각 정식 단락을 세분하여, 그 논리의 진행과 수사법을 형식화, 유형화하고 있으며, 설명 내용에 대한 풍부한 예문이나 모범답안, 또 문장 구성 투식 등을 제시함으로써 수험생들이 효과적으로 과책문을 공부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특히 이 내용들은 과책문의 각 내용 구성 요소들의 내적 관계를 더 긴밀하게 엮어주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었다.

내용의 일관성이 강조된 이른바 구폐식 과책은 대략 16세기 중반을 기점으로, 집책(執策), 전책(殿策)을 포괄하는 조선 과책의 대표 문체 형식이 되었다. 이전 시기에는 특히 전책을 중심으로 출제자의 질문 항목에 맞춰 답안을 구성하는 축조식이 주로 쓰였다. 이는 각각 제시되는 실제 문제들에 대해 각각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기 용이한 구성방식이었다. 하지만 구폐식은 ‘구폐’라는 단락을 글 후반에 한 번 배치함으로써, 제기된 문제들이 하나의 구폐책에 의해 해결되어야 하는 구조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18세기에 이르면, 이 참고서들에서 볼 수 있듯이, 이 구폐식 과책의 형식과 수사법이 더 세세하고 정교하게 규정되기에 이르며, 이들은 모두 내용 일관성의 긴밀한 구성이라는 큰 방향성을 가지고 있었다. 다시 말해 조선 후기의 구폐식 과책의 정식, 글쓰기 틀은 16세기 중반 이후로부터, 이렇게 모든 현상의 원인들을 하나로 귀결시키도록 고안된 혹은 진화된 체계이다.

여기서 과책문의 ‘구폐’ 단락에서 결론적으로 제시되는 해결책 즉 구폐책에는 군주성학론⁴³⁾의 핵심 개념들이 주로 제시되고 있으며, 이는 각 단락을 논리적으로 조직하는 절대적 기준이 되고 있다. 조선 후기 과책의 ‘구폐’ 단락에서는 시제에서 제기된 구체적 문제들에 대해 통상 임금의 수신(修身),

42) 최식(2009), 391~394면; 박재경(2014), 68~70면 참조.

43) 군주성학론에 대한 논의는 도현철(2018) 참조.

정심(正心), 근독(謹獨), 지경(持敬) 등 몇 안 되는 신유학적 제왕학의 개념을 그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뒤집어 말하면, 조선 과책의 글쓰기 방식은 군주성학론적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양식화된 체계이다.⁴⁴⁾ 또, 주희가 언급했던, 말단(末端)과 근본(根本)의 이분법은 조선 후기 과책의 문제 인식 방법과 해결책 제시의 사고 틀로서 작용하고 있는 바, 모든 문제의 원인을 ‘근본’인 왕에게 돌리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 군주성학론과 과책 문체의 결합 양상은 당대의 철학, 문학, 사회, 교육, 문화, 정치, 제도가 복잡하게 얽힌 결과물로서, 조선 후기를 바라보는 흥미로운 관점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1. 자료

『駢儷華藻』(국립중앙도서관)

『對策』(국립중앙도서관)

『策型』(장서각)

『東策』(장서각)

한국고전종합DB

한국역대인물 종합정보시스템

文淵閣四庫全書 電子版

2. 연구논저

강혜중, 「계유년(1633) 法制策 검토」, 『한국민족문화』 제75집, 2020.

김동민, 「正祖의 『策問: 春秋』를 통해 본 조선조 春秋學의 문제의식」, 『東洋古典研

44) 강혜중(2020)은 17세기 초반 법제(法制) 책문(策文)에서 군주성학론의 내용이 법제와 관련된 책문 내용에 반영된 측면을 밝혔으나, 사실 조선 후기 과책 양식은 이러한 내용을 이미 형식에서 강제하고 있다.

- 究』56, 2014.
- 金東錫, 「朝鮮時代 試券 研究」, 韓國學中央研究院 博士學位論文, 2013.
- 金聲振, 「正祖年間 科文의 文體變化와 文體反正」, 『韓國漢文學研究』16집, 1993.
- 김현옥, 「성삼문(成三問)과 신숙주(申叔舟)의 책문(策文)에 나타난 현실인식(現實認識) 비교(比較)」, 『漢文學論集』33집, 2011.
- _____, 「정조(正祖)의 책문(策問)에 나타난 애민사상(愛民思想) 연구(研究)」, 『漢文古典研究』17, 2008.
- _____, 「정조(正祖)의 인재관(人材觀) 연구(研究) - 「책문(策問)」을 중심(中心)으로」, 『漢文學論集』28, 2009.
- _____, 「「책문(策問)」에 나타난 정조(正祖)의 학문관(學問觀)」, 『漢文古典研究』21, 2010.
- 도현철, 「대책문을 통해 본 조선초기 군주성학론: 정도전과 김익정을 중심으로」, 『동방학지』183집, 2018.
- 박선이, 「정조의 『瓊林文喜錄』 편찬과 그 의의」, 『Journal of Korean Culture』40, 2018.
- _____, 「조선 후기 科文選集 瓊林 에 대하여 - 자료 개관 및 가치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 『Journal of Korean Culture』50, 2020.
- 박성창, 『수사학』, 문학과지성사, 2000.
- 박재경, 「조선시대 策文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4.
- 박현순, 「조선시대 과거 수험서」, 『한국문화』 제69집, 2015.
- _____, 「조선후기 文科에 나타난 京鄕 간의 불균형 문제 검토」, 『한국문화』58, 2008.
- _____, 「정조의 『臨軒題叢』 편찬과 御題출제」, 『규장각』48, 2016.
- 백진우, 「策文의 정치적 활용성에 관한 시론 - 정조시대 이가환의 「蕭何大起未央宮論」 분석을 중심으로」, 『東洋古典研究』57, 2014.
- 심경호, 「한국한문학의 변문 활용 문체와 그 역사문화상 기능」, 『한국한문학연구』 제77호, 2020.
- 안소연, 「금남 최부의 정치 활동과 인재관 - 성종 17년 重試책문과 최부의 대책문을 중심으로」, 『한국학논총』49집, 2018.
- 양원석, 「정조 문자책문(文字策問)에서의 문자학제설에 대한 논의 (1)」, 『민족문화연구』45집, 2006.
- 윤재환, 「논난(論難)과 필화(筆禍)를 통해 본 조선 시대의 책문(策文) - 『조선왕조실록(朝鮮王朝實錄)』속 책문(策文) 논난(論難)과 필화(筆禍)를 중심으로」, 『한국한문학연구』68, 2017.

- 이상욱, 「조선 후기 대책(對策)의 역사적 추이」, 『열상고전연구』 제44집, 2015a.
——, 「조선 과문(科文)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5b.
——, 「조선 후기 科表의 문체적 특징과 글쓰기 - 科表 작성을 위한 참고서를 중심으로」, 『대동한문학』 53집, 2017.
임완혁, 「조선전기(朝鮮前期) 책문(策文)과 사(士)의 세계(世界) 인식(認識): 『전책정수(殿策精粹)』를 중심으로」, 『漢文學報』 20집, 2009.
張裕昇, 「科詩의 형식과 문체적 특징」, 『大東漢文學』 第39輯, 2013.
장진엽, 「18세기 후반 文字學(문자학)을 둘러싼 논점들 - 正祖(정조)의 文字策(문자책)과 이에 대한 對策(대책)을 중심으로」, 『南冥學研究』 39, 2013.
최 식, 「策文의 특징과 글쓰기 - 策文準의을 중심으로」, 『동방한문학』 39집, 동방한문학회, 2009.
허경진 · 최영화, 「科試 참고서를 통해 본 조선시대 受驗 문화의 한 국면 - 科文 規式 참고서를 중심으로」, 『洌上古典研究』 제40집, 2014.
황위주, 「科學試驗 研究의 現況과 課題」, 『大東漢文學』 38집, 2013.
——, 「『離騷遺香』을 통해 본 조선후기 ‘科賦’의 출제와 답안 양상」, 『대동한문학』 40집, 2014.

논문투고일 : 2020. 09. 15. 심사완료일 : 2020. 10. 14. 게재확정일 : 2020. 10. 17.

Abstract

Policy Answer and its Reference Books in the late period of Chosŏn

Lee, Sang-wook*

This paper explores the stylistic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answer(對策) in the civil examination of the late Chosŏn period. The aim of this study is to demonstrate how the exam writing influenced and framed the thought process of examinees by formalizing the writing methods of the policy answer. To this end, two reference books on the policy answer, *Ch'aek'yŏng*(策型) of the early eighteenth century and *Pyŏllyŏhwajŏ*(駢儷華藻) of the early nineteenth century will be analyzed to suggest a general outline of the writing structure and its historical tendency.

These two reference books contain rich descriptions and examples on how to cope with the various policy questions (策問) at the actual examination spot, and offer the writing strategies which was thought to guarantee the high score. Firstly, they lay much emphasis on the first part of a piece, namely *hŏdu*(虛頭) paragraph because the most examiners, according to this reference book, scored the answer sheets after only reading this part, due to the shortage of time. Secondly, their descriptions generally focus on the efficient disposition of sentences and paragraphs, which help examinees not only to save time but also to build a coherent logical structure. Thirdly they provide sentence composition templates which direct the flow of logic in a specific way. All these references on the policy answer reflect the unique nature of examination writing in late Chosŏn.

key words civil service examination, exam writing, policy question, policy answer, reference book

* University of Geneva, Switzerland